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全) 루스의 키릴 총대주교 부활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공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존엄한 수사수녀님들과,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복돋아 주는 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께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파스카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선택 받은 거룩한 이 날' 우리는 영적 기쁨과 하느님께 대한 크나큰 감사로 충만하고,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의 힘과 깊이를 이토록 명백히 실감하여 우리의 감동을 표현하려는데 몰약을 든 성녀들이 주님을 보았던 기적적인 사건을 사도들에게 알리러 달려가 외쳤던 말 말고는 다른 말을 찾기란 우리에게 실로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구세주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 지 상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겨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스승을 어떻게 폭행하고 십자가형에 처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어서 숨 쉬지 않는 몸을 무덤에 안치하였고 차가운 동굴을 무거운 돌로 봉인하였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은 신앙의 확립과 삶의 경축으로 바뀌고 비탄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였던 경험과 파스카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간 사도들을 고무하였고 감동시켰습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잔혹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는 벌써 2천여 년이나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살아 있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요한 1:9) 이 소식에 접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파스카의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바, 슬픔과 비애와 인생의 문제들이 야기하는 공포와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현재 근심스러운 시기의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선사된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 해로운 긴박성을 잃게 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파스카의 소식을 전한 사도들처럼 어딘가 꼭 멀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갈라티아 5:6) 살아있는 표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에 겨운 공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께도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미소,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 제

때에 건넌 위로의 말들과 때때로 베푸는 지원 등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충돌과 적대로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증오와 공포, 적대감이 자리 잡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특히 중요한데, 바로 이 사랑만이 악과 불의가 가져온 상처들이 치유되게 합니다. 우리는 정교 그리스도인들 간의 축복된 일치를 파괴하려는 인류의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공고한 평화가 승리하며, 분열의 상흔들이 신성한 은총으로 낫게 되기를 죽음에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여러분도 역시 그분께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파스카 대축일을 축하드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강복하시기를 호소하고 또 우리를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굳세어지게 하는 찬란한 파스카의 무궁무진한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이 빛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절대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게'(마태오 5:14)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하게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읽음으로써 성화되고, 교회의 성사들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한 은총에 참여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써 끊임 없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마태오 5:16) 그분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키릴 모스크바 및 전 루스 총대주교

2022년